



Report 사회지표 || 2021년 12월 16일

“한국인 사회의식 심층분석 보고서”

케이스탯

2021년 12월 사회지표

■ 월 정기 지표

- _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 긍정, 부정평가 비슷
- _ 경제 방향성 : ‘잘못된 방향’ 우세 여론 지속
- _ 정부 신뢰도 : ‘신뢰 안한다’ 여론 여전히 높아
- _ 정부 정책 만족도 : ‘만족한다’ 여론, 소폭 반등
- _ 정당 호감도 : 마음에 드는 정당 ‘없다’ 우위 지속
- _ 다음 달 개인 소득 전망 : 부정적 전망 지속
- _ 다음 달 개인 지출 전망 : ‘늘어날 것’ 지속 우위
- _ 부동산 가격 전망 : ‘상승 전망’ 하락세 뚜렷
- _ 주식 가격 전망 : 상승 전망 다시 높아져

■ 12월 특별지표 : ‘행복’ 관련 국민의식

- _ 개인 행복도 : ‘행복했다’ 의견 높아져
- _ 상대적 행복도 : 주변사람 ‘나보다 행복’ 71%
- _ 5년 후 개인 삶 전망 : ‘지금보다 나아질 것’ 34%
- _ 5년 후 대한민국 전망 : ‘지금보다 나아질 것’ 37%



<http://www.kstat.co.kr>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4길 76 월드빌딩
admin@kstat.co.kr ■ 전화 _ 02_6188_6000

조사개요

조사기간	2021년 12월 3일(금) ~ 12월 5일(일)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웹 조사
조사기관	케이스탯
표본추출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 할당 추출
표 본 틀	케이스탯 K-패널
유효표본	총 1,025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 $\pm 3.06\%$
가 중 치	지역별, 성별, 연령별 셀 가중 부여 (2021년 1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일러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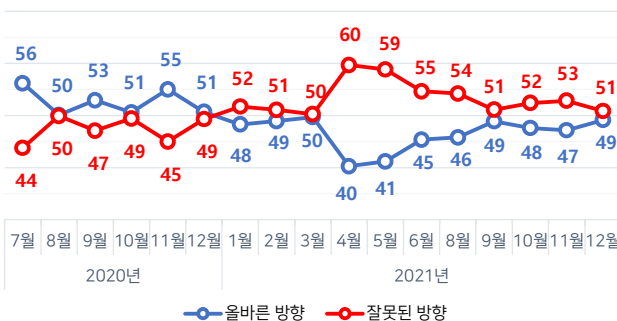
- _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세부항목의 합이 100%가 되지 않거나 넘을 수 있습니다.
- _ 중복 응답 문항의 경우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_ 본 리포트에서 n은 유효 표본크기를 의미합니다.
- _ 응답 사례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월 정기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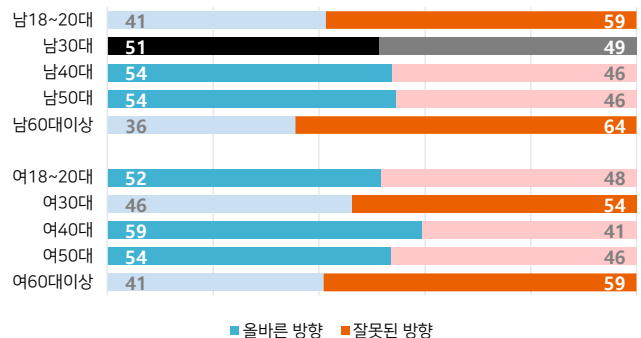
□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 긍정, 부정평가 비슷

- 대한민국 방향성을 두고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의견이 맞서는 양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12월 조사에서 두 의견간의 격차가 2%p로 줄어들
- 12월 조사결과 '올바른 방향' 49% vs '잘못된 방향' 51%로 9월과 동일한 수치를 기록함
- 계층별로 살펴보면 '올바른 방향' 의견이 우세한 계층과, '잘못된 방향'이 우세한 계층으로 갈리고 있음
- 먼저, '올바른 방향' 의견이 우세한 계층은 △남자 4050세대 △여자 18~20대, 여자 4050세대 △충청, 호남 △진보층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등임
- 긍정, 부정의견이 비슷한 계층은 △남자 30대 △경기.인천지역 △중도층 △개인이익 중시층과 중간층 등임
- '잘못된 방향' 의견이 우세한 계층은 △남자 18~20대, 남자 60대이상 △여자 30대, 여자 60대이상 △서울, TK, PK △보수층 △자영업자, 주부, 학생, 은퇴.무직자 △사회이익중시층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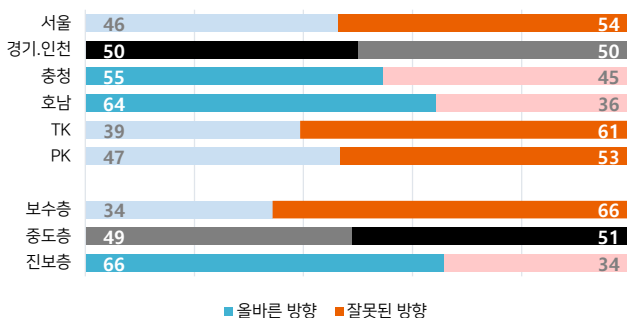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 추이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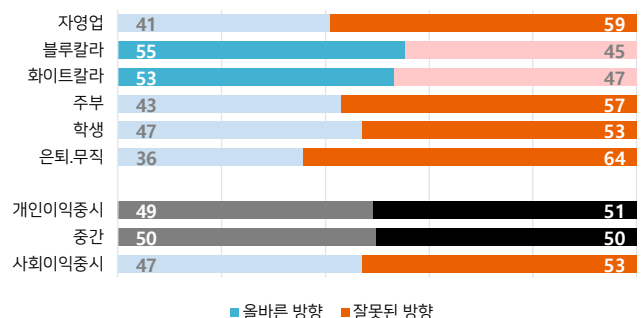
12월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 : 성/연령별 (단위:%)



12월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 : 지역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1.12.05조사,단위:%)



12월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 : 직업별,이익중시별
(자료:케이스탯,2021.12.05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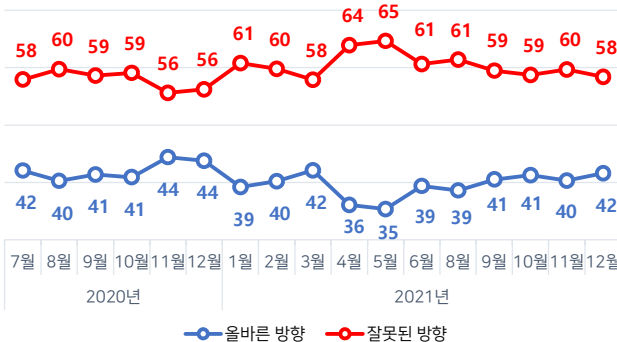
Kstat Point

- ☑ 대한민국 방향성에 대한 평가를 두고, 최근 네 달 가량은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팽팽히 맞서는 모습임 : 전반적으로 여전히 부정평가가 우위에 있으나,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국민들도 '뚜렷한 세'를 유지하고 있음
- ☑ 당초 12월 대한민국 방향성은 '위드 코로나' 시행에 따른 경제·사회적 활력 제고로 긍정평가 상승이 예상되었음 : 그러나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긍정평가 상승폭이 제한된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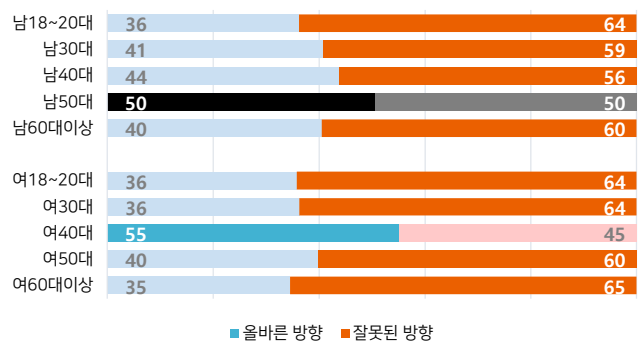
□ 경제 방향성 : '잘못된 방향' 우세 여론 지속

- 경제 방향성에 대한 국민여론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한 채 지속적으로 '잘못된 방향'이 우세한 흐름이 유지되고 있음
 - 12월 조사결과 '올바른 방향' 42% vs '잘못된 방향' 58%로 나타남
- 계층별로 살펴보면 거의 모든 계층에서 '잘못된 방향'이 우세하고, '올바른 방향'이 우세한 계층은 여자 40대와 진보층에 그침
 - 남자 50대는 긍정평가 50% vs 부정평가 50%로 의견이 팽팽하고, 블루칼라 종사자 역시 50% vs 50%로 팽팽함
- '잘못된 방향'이라는 의견이 특히 우세한 계층은 △남자 18~20대 △여자 2030세대, 여자 60대이상 △보수층 △자영업, 주부, 학생, 은퇴.무직자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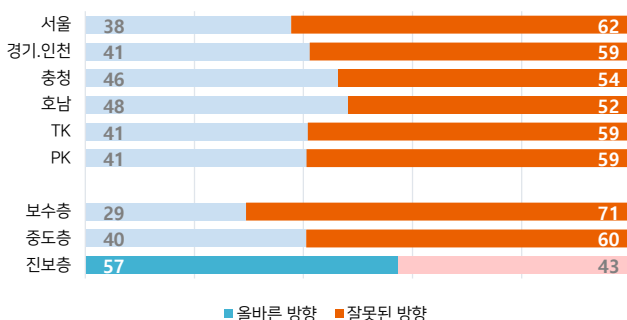
경제 방향성 평가 추이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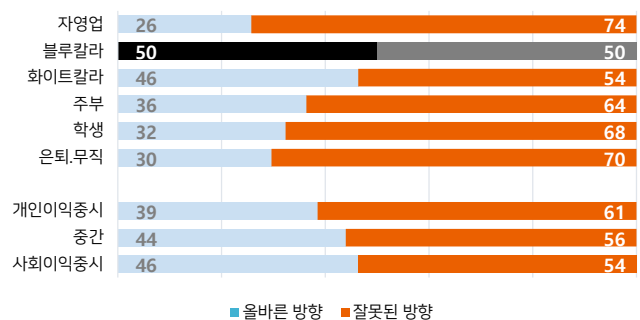
12월 경제 방향성 평가 : 성/연령별 (자료:케이스탯,단위:%)



12월 경제 방향성 평가 : 지역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1.12.05조사,단위:%)



12월 경제 방향성 평가 : 직업별,이직중시별 (자료:케이스탯,2021.12.05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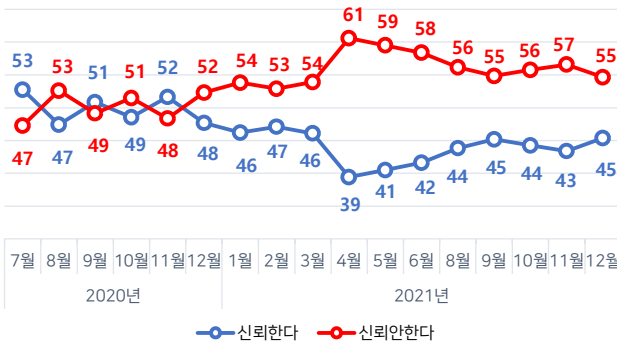
Kstat Point

- ☑ 최근 세계경제는 원자재 가격 급등과 공급망 혼란이 겹치면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고 있음
 - : 세계경제가 완벽한 회복기에 진입하면서 발생하는 정상적인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불안정성이 여전한 가운데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이기에 자칫 성장세가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 ☑ 글로벌 경제와의 연동성이 강한 한국경제 역시 인플레이션이 현실화되면서 경제 불안정이 커지고 있음
 - :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물가 오름세가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는 기대 인플레이션과 자산가격 버블 등을 통해 우리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함
 - : 국민들 역시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경제에 대한 불안감을 체감하는 정도가 점차 강해지고 있음
- ☑ 또한 '위드 코로나' 이후 확진자·중증자가 급증함에 따라, 내년 1월 경제 방향성은 부정 여론이 커질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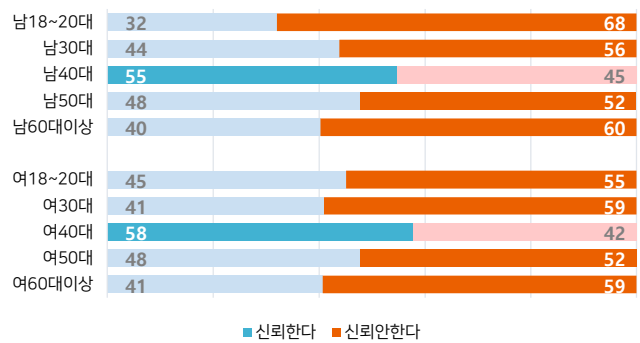
□ 정부 신뢰도 : '신뢰 안한다' 여론 여전히 높아

- 정부 신뢰도는 전 달에 비해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신뢰 안한다'는 의견이 높음
 - 12월 정부 신뢰도는 45%로 전 달에 비해 상승했으나, 그 폭이 2%p로 미미한 수준임
- 계층별로 살펴보면 거의 모든 계층에서 '신뢰 안한다'는 의견이 우세하고, 특히 높은 계층은 △남자 18~20대, 남자 60대이상 △TK, PK △보수층 △자영업자, 학생, 은퇴.무직자 등임
- '신뢰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계층은 △남자 40대 △여자 40대 △호남 △진보층 등임
 -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 종사자는 '신뢰한다'와 '신뢰 안한다'는 의견이 팽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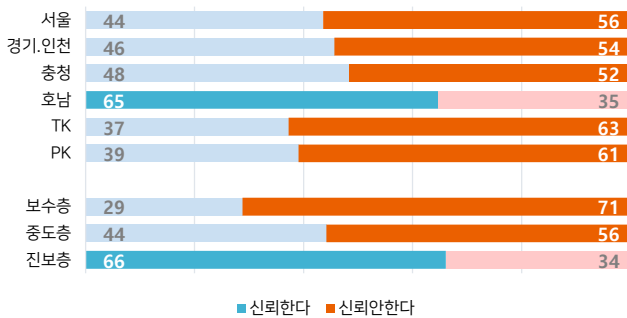
정부 신뢰도 추이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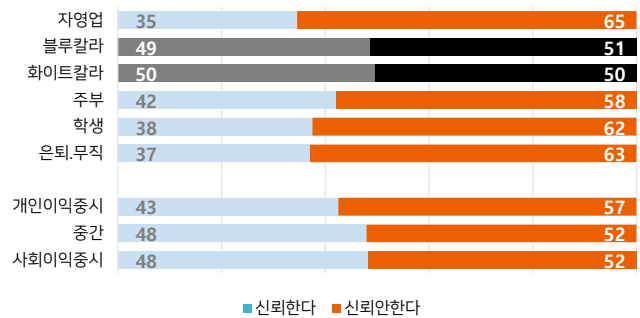
12월 정부 신뢰도 : 성/연령별 (자료:케이스탯,2021.12.05조사,단위:%)



12월 정부 신뢰도 : 지역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1.12.05조사,단위:%)



12월 정부 신뢰도 : 직업별,이익충시별 (자료:케이스탯,2021.12.05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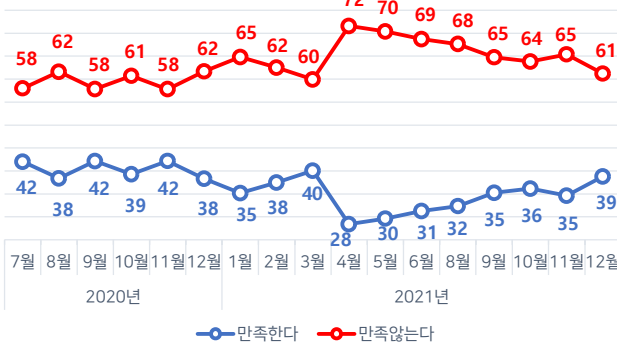
Kstat Point

- ☑ 당초 12월 정부 신뢰도는 횡보 또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었음
 - : 대통령 선거가 본격화됨에 따라 국민적 관심은 현 정부가 아닌 대선 후보로 이동하고, 특히 여당 후보 지지율에 따라 현 정부 신뢰도가 연동될 것으로 전망함
 - : 11월 보고서 작성 시점(11월 18일)에서 윤석열 후보는 컨벤션 효과를 누리면서 상승하고, 이재명 후보는 박스권에 갇혀 있어 정부 신뢰도 역시 횡보 또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함
- ☑ 하지만 당초 전망과 달리 12월 정부 신뢰도는 소폭이지만 상승함
 - : 이는 윤석열 후보의 상승세가 주춤하고 이재명 후보가 박스권에서 벗어나 상승세를 보이는 최근의 여론 지형이 반영된 결과로 보임
- ☑ 내년 1월 역시 여야 대선후보 지지율에 따라 정부 신뢰도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 : 다만, 현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위드 코로나' 정책이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후퇴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이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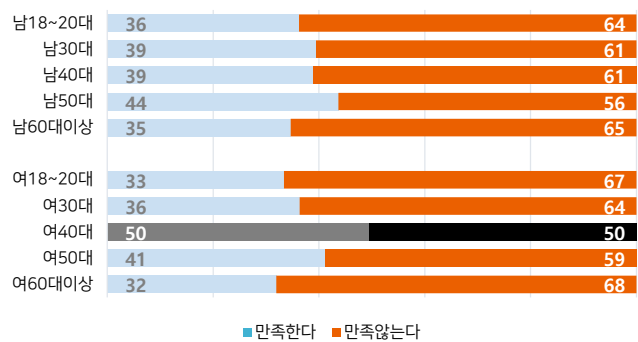
□ 정부 정책 만족도 : '만족한다' 여론, 소폭 반등

- 정부 정책에 불만을 갖는 국민여론이 확고한 가운데, 11월에 비해 '만족한다'는 여론이 소폭이지만 반등 양상을 보임
 - 12월 조사결과 '만족한다'는 의견은 전 달에 비해 4%p 상승한 39%를 기록, 반등세를 나타냄
- 계층별로 살펴보면 거의 모든 계층에서 '만족 않는다'는 의견이 우세하고, '만족한다'는 의견은 호남과 진보층에 그침
 - 여자 40대는 '만족한다'와 '만족 않는다'는 의견이 공히 50%로 팽팽함
- '만족 않는다'는 의견이 특히 우세한 계층은 △남자 18~20대, 남자 60대이상 △여자 2030세대, 여자 60대이상 △서울, PK △보수층 △자영업자, 주부, 학생, 은퇴.무직자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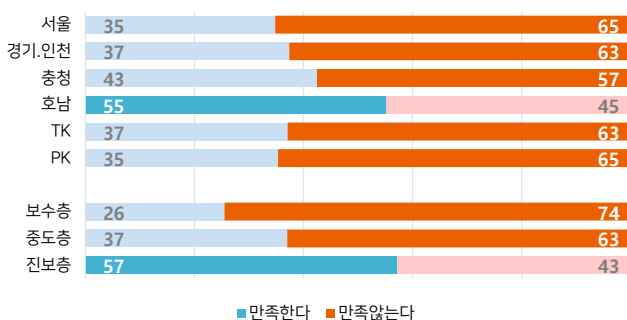
정부정책 만족도 추이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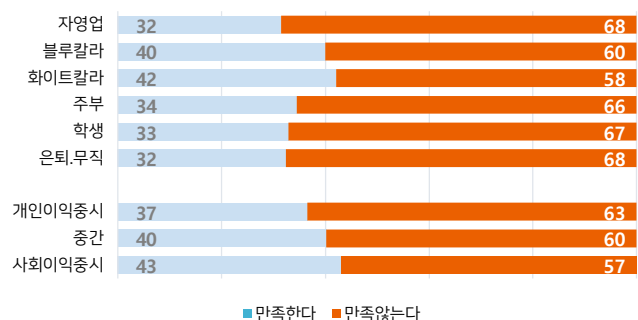
12월 정부정책 만족도 : 성/연령별 (자료:케이스탯,단위:%)



12월 정부정책 만족도 : 지역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1.12.05조사,단위:%)



12월 정부정책 만족도 : 직업별,이직중시별 (자료:케이스탯,2021.12.05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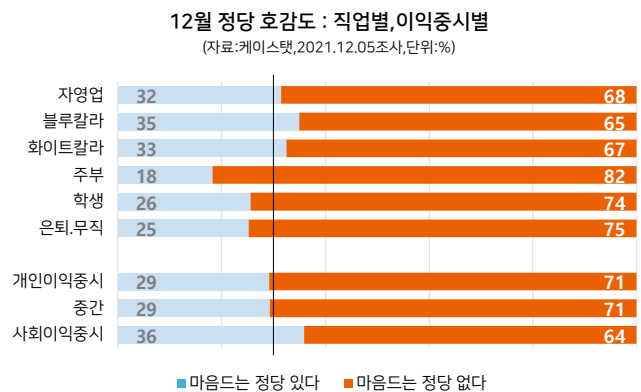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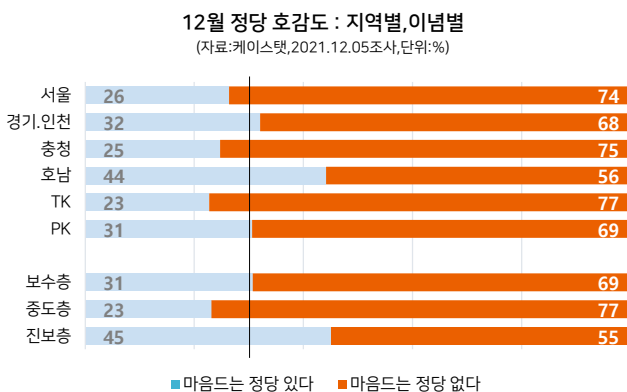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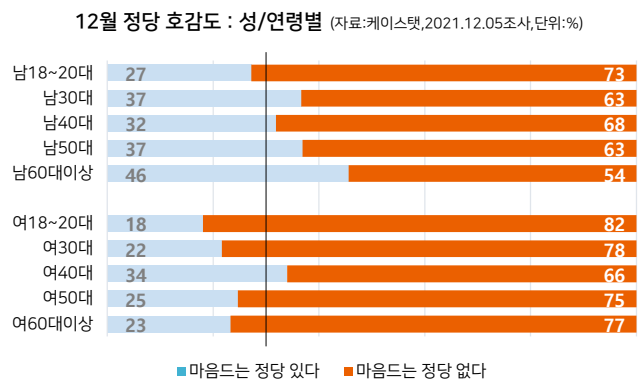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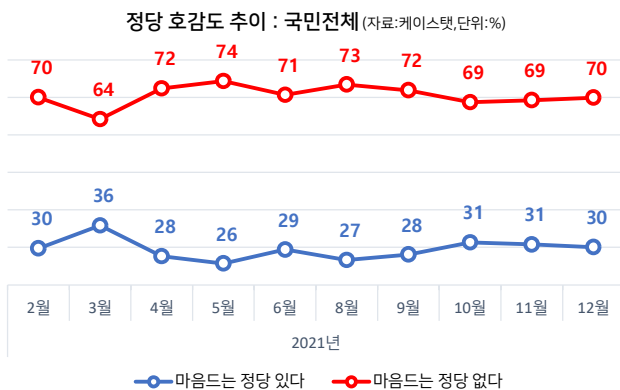


Kstat Point

- ☑ 11월 1일 시행된 '위드 코로나' 정책에 많은 국민이 기대감을 보였지만, 현실은 기대와 달리 코로나19 확진자·위중증 환자 수 급증 사태를 낳음
 - : 조사 시점인 12월 5일에도 연일 확진자·위중증 환자 수가 기록을 경신하면서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었음
-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 만족도가 소폭 상승한 것은 대선정국 영향력 때문으로 분석됨
 - : 이른바 '진영대결' 양상이 강화되면서 진보층이 결집하고, 정부정책 만족도 역시 상승한 것으로 보임
- ☑ 앞으로도 정부신뢰도와 정부정책 만족도는 객관적 현실 보다 진영대결 강도에 더 크게 영향받을 것으로 예상됨
 - : 최근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현 정부와의 차별화를 시도하는 것은 이러한 여론 지형을 볼 때, 전략적으로 옳바른 지적임

□ 정당 호감도 : 마음에 드는 정당 '없다' 우위 지속

- 국민들 다수는 '마음에 드는 정당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흐름은 매우 견고한 것으로 보임
 - 12월 조사 결과, '마음에 드는 정당 있다' 30% vs '마음에 드는 정당 없다' 70%로 이전과 비슷한 수치를 나타냄
- 계층별로 살펴보면, 모든 계층에서 '마음에 드는 정당이 없다'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높은 계층은 △남자 18~20대 △여자 2030세대, 여자 5060세대 △서울, 충청, TK △중도층 △주부, 학생, 은퇴.무직자 등임
 - 아래 그림에서 검은색 세로선은 국민 전체 수치를 의미함
- 상대적으로 '있다'는 의견이 높은 계층은 △남자 60대이상 △호남 △진보층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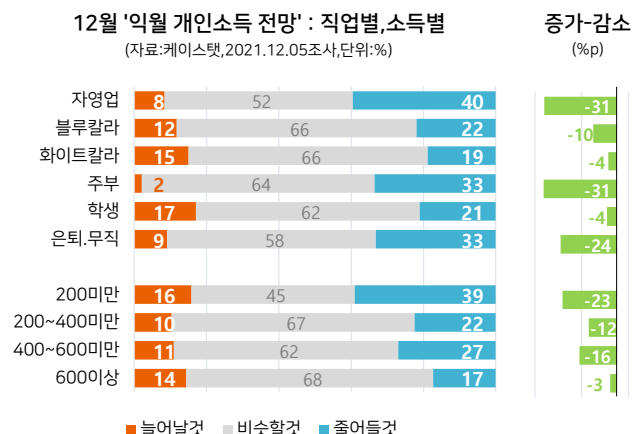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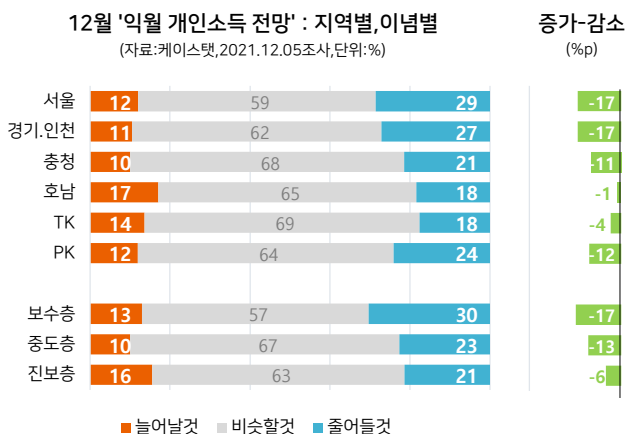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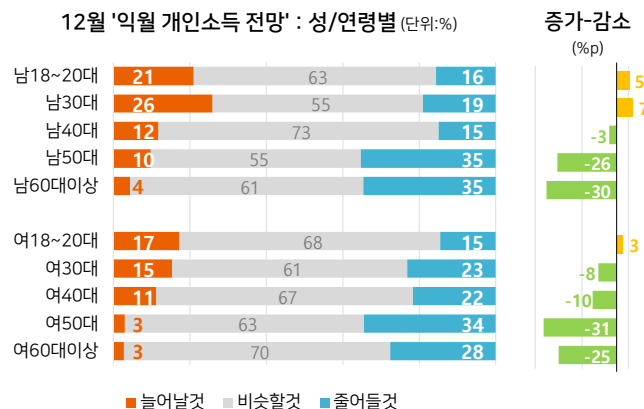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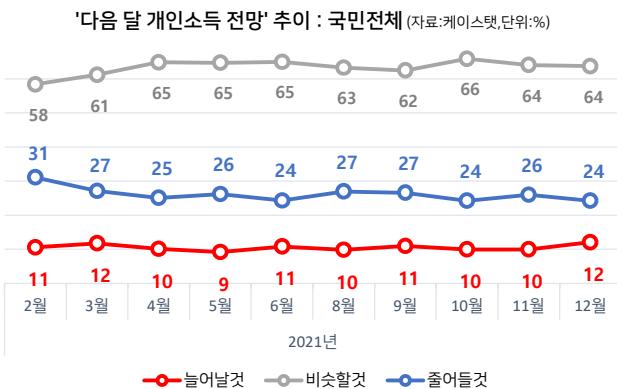


Kstat Point

- ☑ 성/연령별 응답을 자세히 살펴보면 '마음에 드는 정당이 없다'는 응답이 특히 높은 성/연령대는 여자 2030세대임
 - : 여자 18~20대는 82%로 가장 높고, 여자 30대 역시 78%로 두 번째로 높음
 - : 그만큼 여자 2030세대는 지금의 현실정치에 가장 강한 불만을 갖고 있음
- ☑ 대통령 선거가 점점 더 진영대결 흐름으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까지 이들 여자 2030세대는 진영대결 흐름에 가세하지 않은 채 관망하고 있음
 - : 각종 대선후보 여론조사 결과에서 부동층이 가장 많은 세대는 여자 2030세대임
- ☑ 앞으로 이들 여자 2030세대가 진영대결 흐름에 가세할 것인지, 가세한다면 어느 진영에 설 것인지에 따라 이번 대선결과가 좌우될 것으로 분석됨

□ 다음 달 개인 소득 전망 : 부정적 전망 지속

- 다음 달 개인 소득 전망은 조사 이후 한결같이 '지금과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높은 가운데, '줄어들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우세함
 - 12월 조사결과 '지금과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64%로 높은 가운데, '지금보다 줄어들 것' 24%, '지금보다 늘어날 것' 12%로 나타남
- 국민 전체적으로 '늘어날 것'에서 '줄어들 것'을 뺀 '차이'는 -12%p로 부정적임
- 계층별로 살펴보면 거의 모든 계층에서 '차이'가 마이너스를 기록해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고, 특히 높은 계층은 △남자 5060세대 △여자 5060세대 △자영업자, 주부 등임
- '차이'가 플러스를 기록한 계층은 남자 2030세대와 여자 18~20대 계층에 그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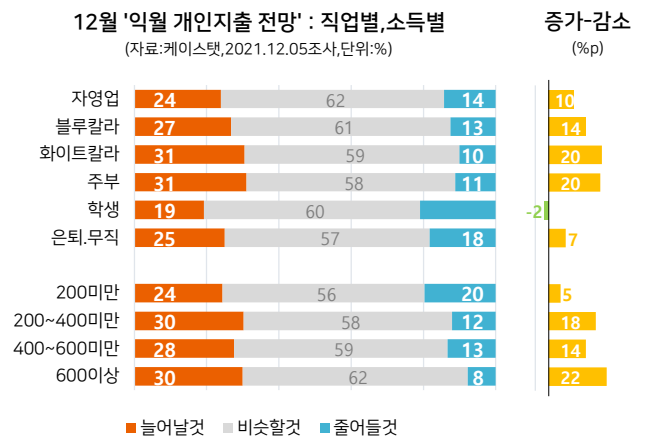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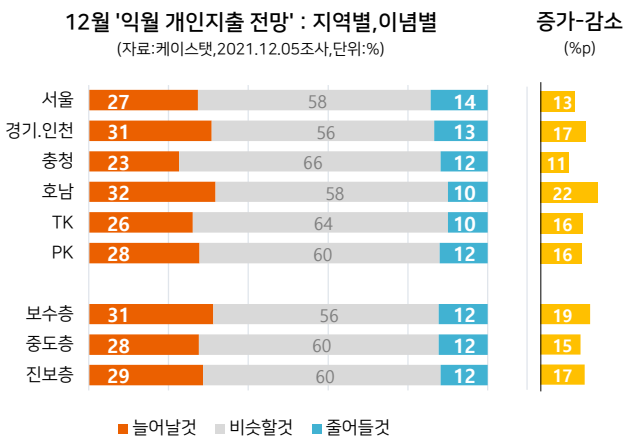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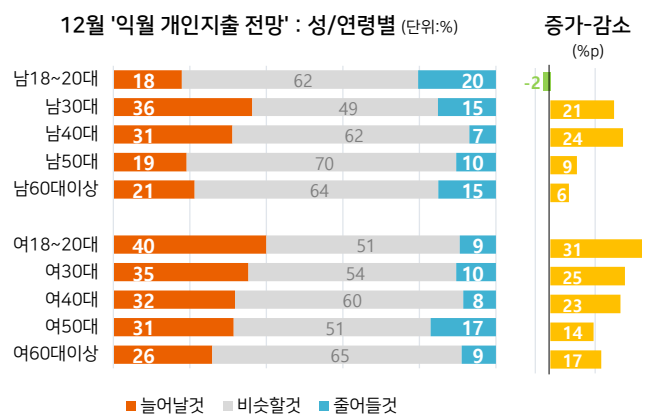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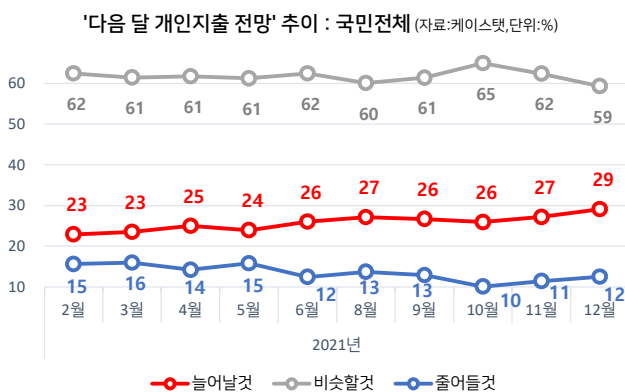


Kstat Point

- ☑ 다음 달 개인 소득 전망을 조사한 이래 국민 여론은 한결같이 '지금과 비슷하거나 줄어들 것'이라는 태도를 유지함
- ☑ 특히 5060세대는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을 강하게 피력함
 - : 이에 비해 2030세대는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과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이 유동적으로 변함
 - : 이러한 흐름을 볼 때, 개인 소득 전망은 객관적인 판단 보다 심리적 측면이 강한 것으로 보임

□ 다음 달 개인 지출 전망 : '늘어날 것' 지속 우위

- 다음 달 개인 지출 전망 역시 조사 이후 지속적으로 '지금과 비슷할 것'이 높은 가운데, '지금보다 늘어날 것'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12월 조사결과 '지금과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59%이고, 다음으로 '늘어날 것' 29%, '줄어들 것' 12%로 나타남
- '늘어날 것'에서 '줄어들 것'을 뺀 '차이'는 국민 전체적으로 17%p를 기록함
- 거의 모든 계층에서 '차이'(늘어날 것 - 줄어들 것)가 플러스를 기록했으며, 특히 플러스 수치가 높은 계층은 △남자 3040세대 △여자 2040세대 △호남 △화이트칼라, 주부층 △600만원이상 소득층 등임
- '차이'가 마이너스 수치를 보인 계층은 남자 18~20대와 학생층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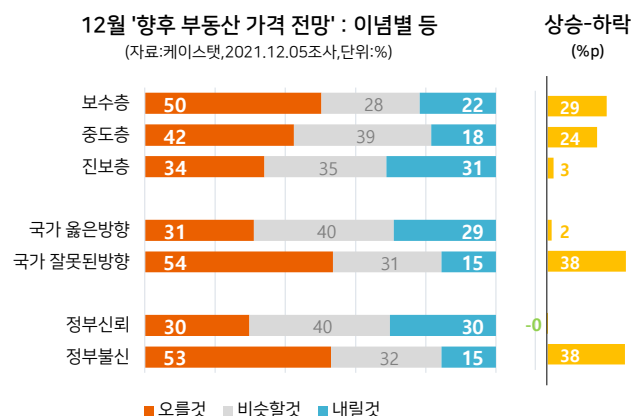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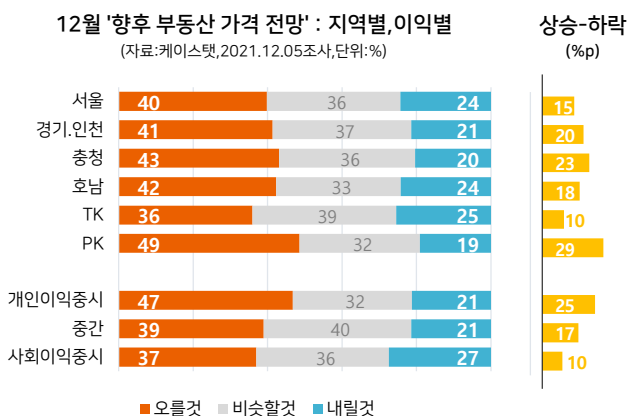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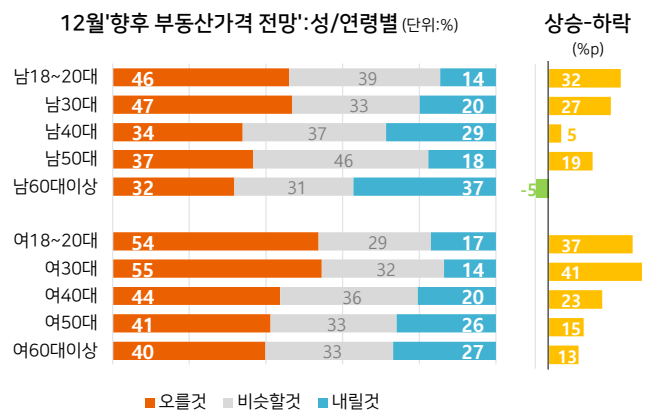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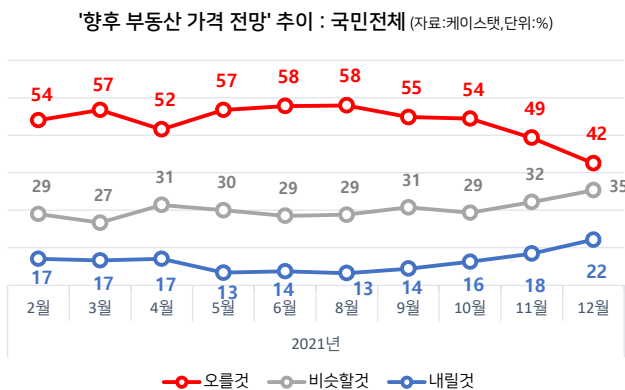


Kstat Point

- ☑ 지금까지의 '다음 달 소득·지출 전망'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국민 다수는 소득과 지출 모두 '지금과 비슷할 것'이라고 응답함
 - : 국민 다수는 코로나19의 영향력이 강하게 유지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신중하게 바라보는 것으로 분석됨
- ☑ 다음으로 소득은 지금보다 줄고, 지출은 지금보다 늘어날 것이라는 국민이 많음
 - : 코로나19 이후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데는 이러한 소득-지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출'을 이용하는 국민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임

□ 부동산 가격 전망 : '상승 전망' 하락세 뚜렷

- 향후 부동산 가격 전망에 대해 '지금보다 오를 것'이라는 응답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조사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함
 - 12월 조사 결과, '지금보다 오를 것'이라는 의견은 전 달에 이어 하락해 42%를 기록했고, '지금과 비슷할 것' 35%, '지금보다 내릴 것' 22% 순으로 나타남
- 계층별로 살펴보면, 거의 모든 계층에서 '차이'(오를 것 - 내릴 것)가 플러스를 기록해 여전히 부동산 상승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만 그 폭이 줄어들음
- '차이'의 플러스 수치가 특히 높은 계층은 △남자 2030세대 △여자 2030세대 △PK △보수층 △국가 '잘못된 방향' 평가층 △정부 불신층 등임
- 상대적으로 '차이' 플러스 수치가 낮은 계층은 △남자 40대, 남자 60대이상 △TK △사회이익 중시층 △진보층 △국가 '옳은 방향' 평가층 △정부 신뢰층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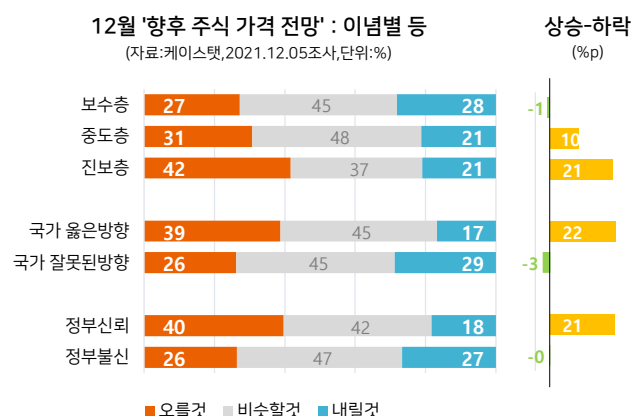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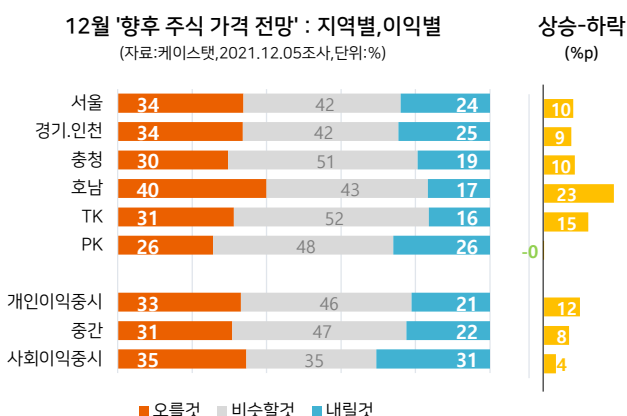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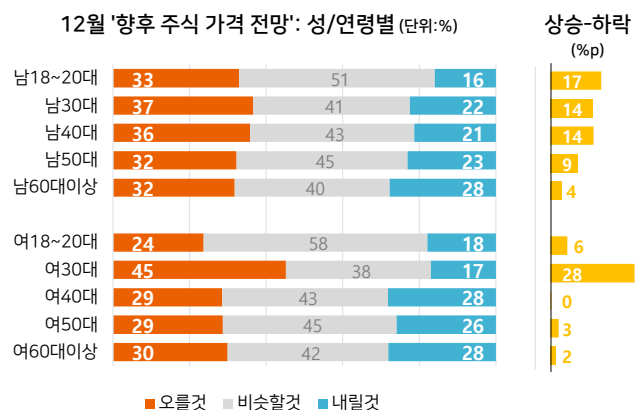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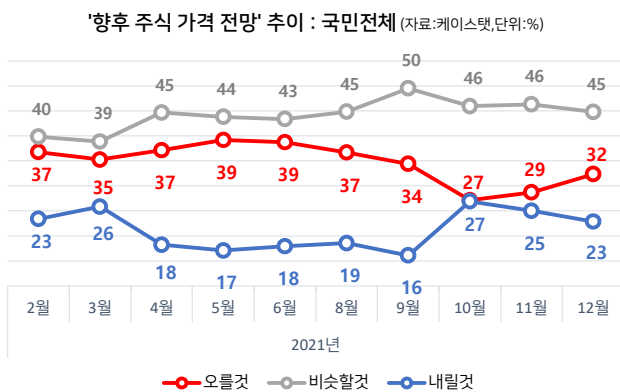


Kstat Point

- ☑ 부동산 가격 전망은 지난 11월에 이어 12월에도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하락함
- ☑ 현실에서도 내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망이 엇갈리는 등 그간의 '상승세'가 꺾인 것으로 보임
 - : 남녀 2030세대의 경우 여전히 '상승 전망'이 큰 폭의 우세를 보이는데, 여기에는 부동산 가격 폭등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이 강하게 작동하기 때문으로 판단됨

□ 주식 가격 전망 : 상승 전망 다시 높아져

- 주식 가격에 대한 국민 전망은 ‘비슷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상승 전망이 다시 높아지는 모습을 나타냄
 - ‘지금과 비슷할 것’이라는 의견이 45%로 높고, ‘지금보다 오를 것’ 32%, ‘지금보다 내릴 것’ 23%를 기록함
- ‘오를 것’에서 ‘내릴 것’을 뺀 ‘차이’를 살펴보면 거의 모든 계층에서 플러스를 기록, 상승할 것으로 전망함
 - 11월에는 계층별로 상승 전망, 하락 전망이 엇갈렸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거의 모든 계층에서 상승 전망이 우세함
- ‘차이’가 플러스 수치를 기록한 계층 중 특히 높은 계층은 △남자 2040세대 △여자 30대 △호남, TK △진보층 △국가 ‘올바른 방향’ 평가층 △정부 신뢰층 등임
- 플러스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은 △남자 60대이상 △여자 18~20대, 여자 4006세대 △사회이의 중시층 △보수층 △국가 ‘잘못된 방향’ 평가층 △정부 불신층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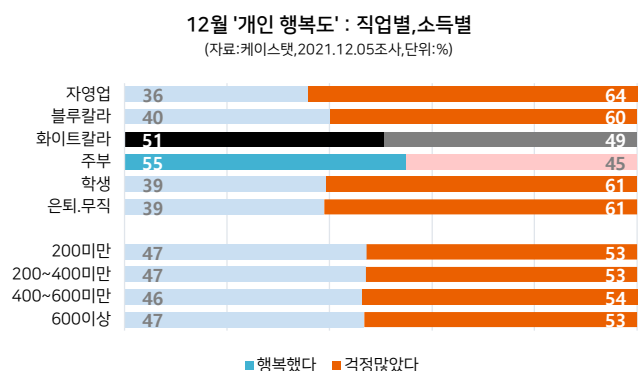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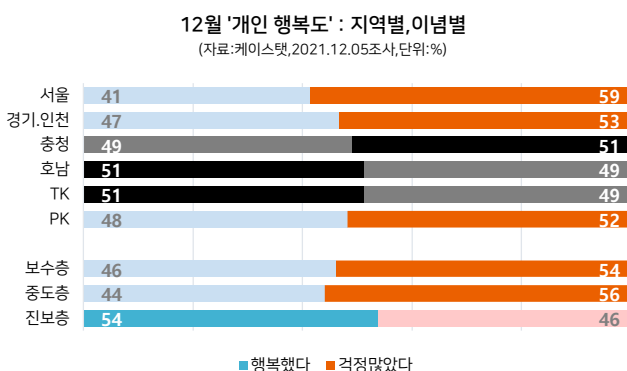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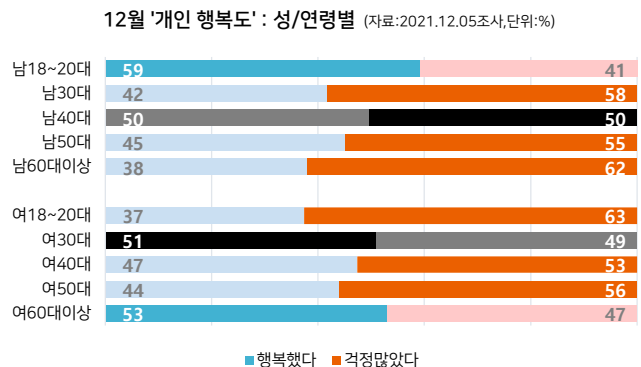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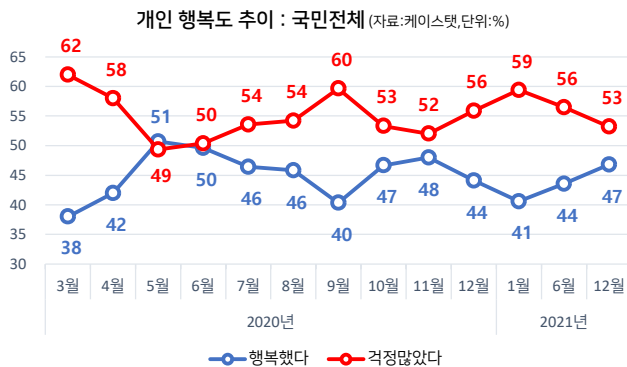
Kstat Point

- ☑️ 주식시장은 상당 기간 박스권에 갇혀 있다 최근 이른바 ‘산타 랠리(또는 크리스마스 랠리)’가 연출되고 있음
 - : 산타 랠리는 12월부터 이듬해 초반까지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현상으로, 13일 현재 증시는 반등하고 있음
- ☑️ 하지만 외국인들은 주식을 매입하는데 비해 내국인들은 매도하는 등 산타 랠리에 대한 반응은 다르게 나타남
 - : 내국인은 산타 랠리보다 2022년 새해를 더 기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조사에서도 이러한 기대감이 드러남

12월 특별지표 : '행복' 관련 국민의식

□ 개인 행복도 : '행복했다' 의견 높아져

-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들의 행복도가 다소 개선된 것으로 조사됨
 - “선생님께서서는 어제 하루를 돌아볼 때 행복하셨어요, 아니면 걱정이 많으셨어요?”라는 질문에 ‘걱정이 많았다’는 응답이 53%이고, ‘행복했다’는 응답이 47%로 나타남
 - 2021년만 놓고 보면 ‘행복했다’는 응답이 1월 41%에서 47%로 상승함
- 계층별로 살펴보면, 거의 모든 계층에서 ‘걱정 많았다’는 응답이 우세했으며, 특히 높은 계층은 △남자 30대, 남자 60대이상 △여자 18~20대 △서울 △자영업자, 블루칼라, 학생, 은퇴.무직자 등임
- ‘행복했다’는 응답이 우세한 계층은 △남자 18~20대 △여자 60대이상 △진보층 △주부 등임
 - ‘걱정 많았다’와 ‘행복했다’는 응답이 팽팽한 계층은 △남자 40대 △여자 30대 △충청, 호남, TK, PK △화이트칼라 중사자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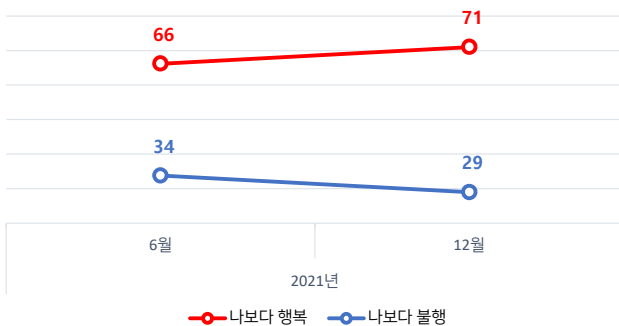
Kstat Point

- ☑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국민 행복도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위드 코로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임 : 국민들은 코로나19가 아가간 '일상'을 되찾기를 원했으며,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은 이러한 지점 때문이었음 : 상당수 국민들은 지인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 행복도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됨
-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위중증 환자 급증으로 '위드 코로나'가 후퇴할 것이 확실시되는데, 국민 행복도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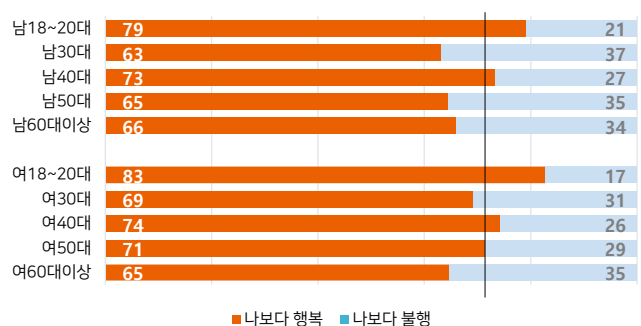
□ 상대적 행복도 : 주변사람 '나보다 행복' 71%

- 국민들이 생각하는 개인적 행복도는 47%이지만, 주변사람과 비교한 상대적 행복도는 큰 폭으로 하락한 29%에 그침
 - “선생님 주변 사람들을 볼 때 선생님보다 행복한거 같으세요, 아니면 불행한거 같으세요?”라는 질문에 국민 중 71%는 ‘나보다 행복한 것 같다’고 응답함
- 계층별로 살펴보면 모든 계층에서 주변 사람들이 ‘나보다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아래 그림에서 검은색 세로선은 국민 전체 수치를 의미함
- 상대적 행복도가 특히 낮은 계층(‘나보다 행복’ 응답이 높은 계층)은 △남자 18~20대 △여자 18~20대 △호남, TK △블루칼라, 학생 △200만원 미만 저소득층 등임
- 상대적 행복도가 비교적 높은 계층(‘나보다 불행’ 응답이 높은 계층)은 △남자 30대, 남자 5060세대 △여자 60대이상 △PK △화이트칼라 △400만원 미만 소득층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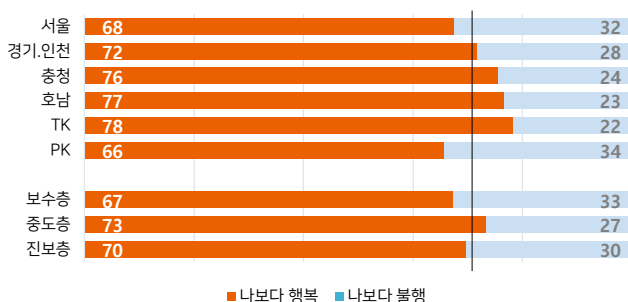
나와 주변사람 행복 비교 추이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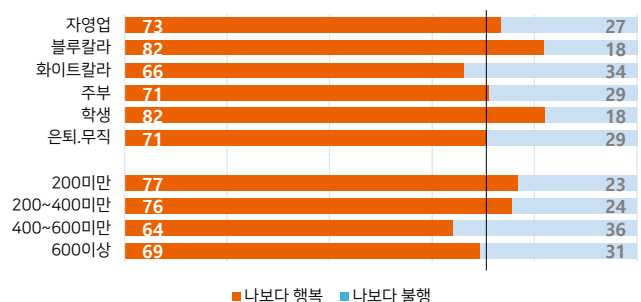
12월 '나와 주변사람 행복 비교' : 성/연령별 (단위:%)



12월 '나와 주변사람 행복 비교' : 지역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1.12.05조사,단위:%)



12월 '나와 주변사람 행복 비교' : 직업별,소득별 (자료:케이스탯,2021.12.05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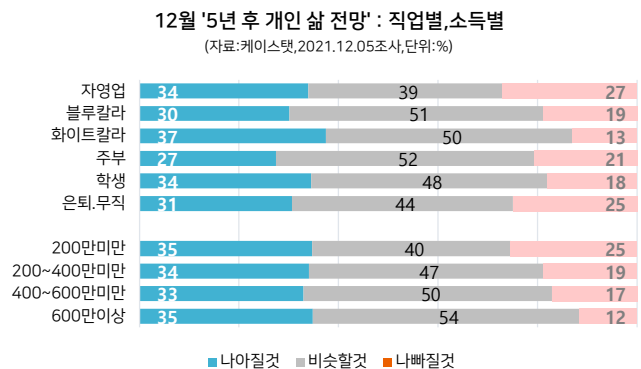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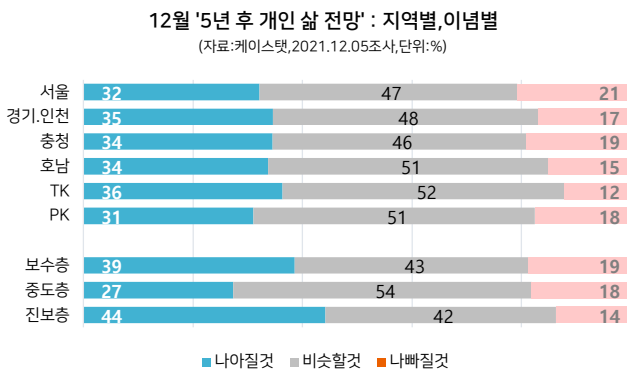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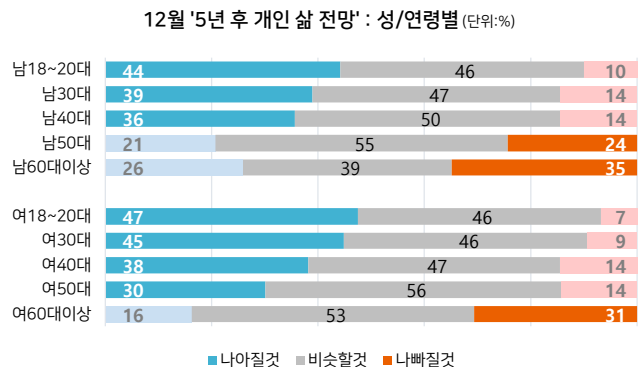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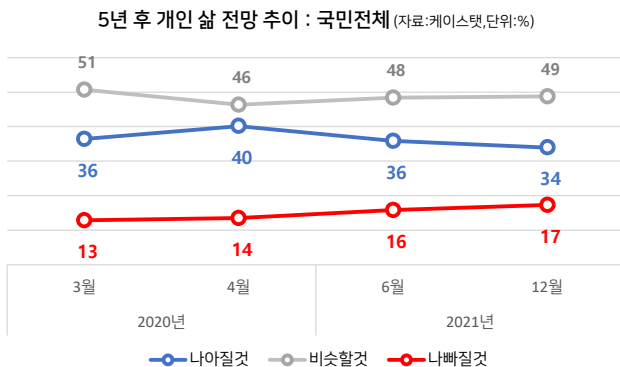


Kstat Point

- ☑ 행복에 대한 기준은 다양하지만 특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 즉 상대적 행복감임
 - : 우리 국민 대다수는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나보다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곧 스스로의 행복도를 낮추는 요인이 됨
- ☑ 특히 남녀 20대의 상대적 행복감이 가장 낮는데, 이는 소득불평등과 불공정성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 소득불평등은 이른바 ‘흙수저 금수저’ 담론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는데, 20대는 이러한 담론속에 성장한 세대임
 - : 또한 사회주도층 인사들의 이른바 ‘부모 찬스’라는 불공정한 행태를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된 것으로 분석됨

□ 5년 후 개인 삶 전망 : '지금보다 나아질 것' 34%

- 국민들은 5년 후 개인 삶을 전망할 때, '지금과 비슷'하거나(49%), '지금보다 나아질 것'(34%)이라고 생각함
 - 12월 조사에서 '지금보다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은 17%에 그쳤으나, 이전에 비해 그 비중이 소폭 증가함
- '지금과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을 제외하고 '나아질 것'과 '나빠질 것'을 비교하면, 거의 모든 계층에서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나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특히 높은 계층은 △남자 2030세대 △여자 2030세대 △보수층, 진보층 등임
-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우세한 계층은 △남자 5060세대 △여자 60대이상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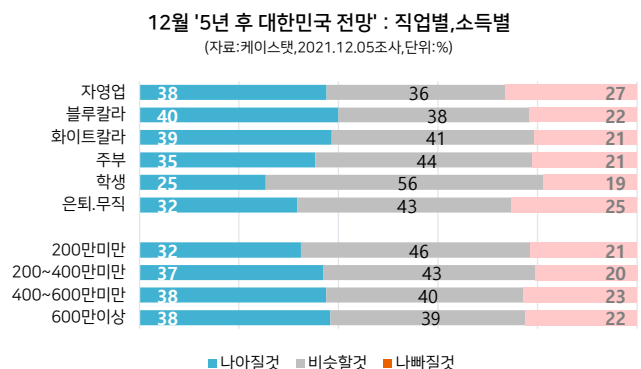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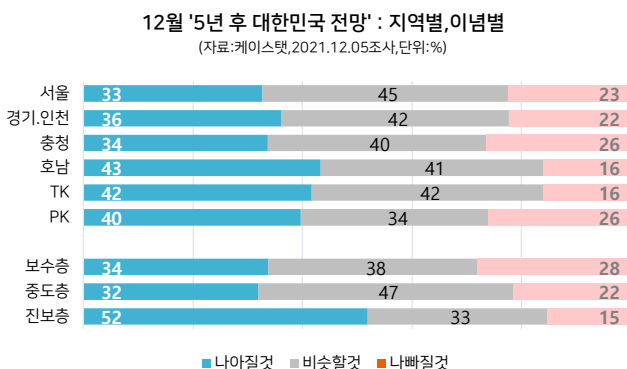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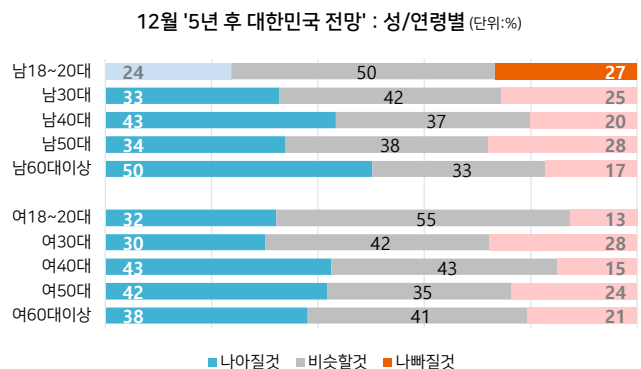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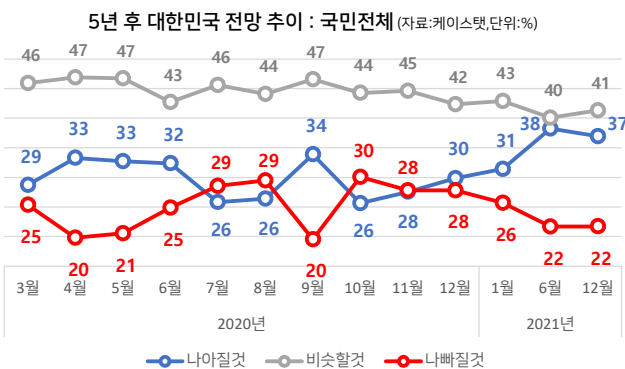


Kstat Point

- ☑ 우리 국민들은 지금의 행복도가 낮고(47%), 상대적 행복도는 더 낮지만(29%), 5년 후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비교적 낙관적으로 전망함
- ☑ 하지만 연령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령이 낮을수록 낙관적인데 비해 연령이 높을수록 비관적임
 - : 연령이 낮을수록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작동한 결과로 보임
 - : 또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노인 빈곤율'을 기록한 우리나라 현실도 반영된 결과로 분석됨
- ☑ 또한 소득도 영향을 미쳐, 소득이 낮을수록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비슷하지만, '지금보다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은 소득이 낮을수록 높아져 소득에 따라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달라지는 것으로 보임

□ 5년 후 대한민국 전망 : '지금보다 나아질 것' 37%

- 5년 후 대한민국 전망에 대해서는 '지금과 비슷'하거나(41%), '지금보다 나아질 것'(37%)이라는 생각이 강함
 - '지금보다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은 22%임
- 5년 후 대한민국 전망 추이를 보면, 2021년 들어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높아진 모습임
- '지금보다 나아질 것'과 '지금보다 나빠질 것' 응답만을 비교하면, 거의 모든 계층에서 '나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우세함
- '나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특히 높은 계층은 △남자 40대, 남자 60대이상 △여자 4050세대 △호남, TK △진보층 등임
-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남자 18~20대(절대적으로도 높음), 남자 50대 △여자 30대 △보수층 △자영업자 등임



Kstat Point

- ☑ 2021년 들어 대한민국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이 높아진 데는 K-POP을 비롯한 우리 대중문화가 거둔 세계적 성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국민들은 2021년에 가장 기억나는 사건으로 '오징어 게임 세계 1위'를 꼽을 정도로 문화적 성과에 자부심을 느낌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케이스탯 리포트 41호 『연말특집 ① 국민기억으로 보는 2021년』 참고)
- ☑ 한편, 남자 18~20대는 5년 후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5년 후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부정적임
 - ：남자 18~20대는 대한민국 현실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고, 대한민국 미래에 대해서도 다소 냉소적인 것으로 보임



http://www.kstat.co.kr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4길 76 월드빌딩
admin@kstat.co.kr ■ 전화 _ 02_6188_6000

케이 스탓 리포트는 정기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버즈(Buzz) 분석을 기반으로 합니다.

케이 스탓 리포트는 사회, 경제, 생활, 문화 등 우리 삶과 가까운 주제로 구성됩니다.

케이 스탓 리포트는 케이 스탓과 컨설팅 전문가의 기획회의를 통해 선정된 주제와 정가지표를 조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와 여론의 흐름을 파악합니다.

케이 스탓 리포트는 심층적인 분석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사회조사의 공정성과 가치를 더하고자 합니다.

케이 스탓 리포트는 매월 2,4주 목요일에 발행합니다.

케이 스탓 리포트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면, 문의 메일 report@kstat.co.kr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케이 스탓 리포트 42호] 발간 안내

케이 스탓 리포트 42호는 『연말특집 ② '만약에...' 가치와 직업의 가격』이라는 주제로 12월 23일(목요일)에 발간됩니다.